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집권의 원동력과 국내적 거버넌스

방정욱, 이지훈, 김성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 | | |
|---------------------|-------------|
| I.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사회적 측면 |
| II. 정부 출범 | 4. 종교적 측면 |
| 1. 헌법 및 권위주의적 대통령체제 | IV. 국내·외 정책 |
| 2. 정당 및 정치 | 1. 경제정책 |
| III. 장기집권의 원동력 | 2. 대외정책 |
| 1. 정치적 측면 | V. 결론 |
| 2. 경제적 측면 | |

I. 서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올해로 냉전 붕괴와 함께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지 1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체제이행과정에서 수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하는 중에 있다. 구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이후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및 국가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 빈곤 등 많은 불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중, 투르크메니스탄은 80년대 말 구 소비에트의 자체 모순으로 인한 해체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사회는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 저편에서 수수적 태도를 보일 정도로 정치·사회적 폐쇄성이 심했던 지역이다. 그러한 이유로 1991년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당시 구 소비에트 전체에 퍼져 있었던 자발적 국가건설의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았고, 정치형태의 변화나 정당 시스템 개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폐쇄적 사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여전히 1당 체제(투르크멘민주당)의 1인 독재 시스템(니야조프, 그리고 그의 사망 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을 커다란 정치적 굴곡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립 이후 체제이행과 국제사회의 편입과 정중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당체제유지의 원동력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대내·외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정부 출범

1. 권위주의적 대통령체제

[표 1] 투르크메니스탄 헌법¹⁾

<p>제1장 기본헌법</p>	<p>4조: 정부는 집행, 입법 및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사법 권력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권력분리원칙에 기반을 둔다.</p>
<p>제2장: 기본권리, 자유, 국민과 시민의 의무</p>	<p>28조: 시민은 법과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당이나 다른 사회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치적 당이나 다른 사회단체의 행동과 형태의 목적이 헌법의 질서를 폭력적으로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활동에 폭력을 허락하거나/ 헌법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반하도록 선동을 하거나/ 전쟁, 인종, 국가, 사회, 종교적으로 악의를 선동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이나 건강을 침입하거나/ 국가적이나 종교적 특성을 기초로 정치적 당이나 군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한다.)</p>
<p>제3장: 구조의 시스템과 정부</p>	<p>제1절: 일반규정 46조: 최고의 통치권한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 각료에 의해 이행된다.</p> <p>제2절: 투르크메니스탄 인민위원회 48조: 인민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9조: 임기는 5년이며 보수는 없다. 50조: 인민위원회의 개관과 기능 1) 헌법 개정, 혹은 새로운 헌법 채택 2) 전반적인 국민투표 시행 3)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관한 기본적 방향 제시, 건의 4) 주의 경계 및 행정상의 영토 설계 개선 5) 정부 간 연합과 기타 구성에 관한 조약을 비준 및 비난 6) 전쟁과 평화의 상태 선언 7) 기타 문제점들에 대한 재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51조: 인민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 국회, 기타 행정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확립된다.</p> <p>제3절: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54조: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국가와 행정권의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공무원이다. 그리고 국가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증함과 동시에 헌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57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2) 외교정책의 수행을 관리</p>

1)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Niyazov. Ashgabat. 18 May 1992. No. 691-XII. Translation Copyright Eric W. Sievers and LEEP 1997. 영문을 한글로 필자가 재정리.

	<p>9)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영예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특별한 상태의 칭호, 지위, 차별성을 수여한다.</p> <p>11)면책과 특사 승인</p> <p>70조: 국회의원의 권리는 승인된 의원들(2/3이상)의 동의 없이 박탈되지 않는다.</p> <p>71조: 국회는 조직을 운영하며 국회의원은 원칙적인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p> <p>72조: 국회의장은 비밀투표로 부국회의장은 공개투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부재중에는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p> <p>73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건들을 처리한다. 구성원은 국회의장, 부국회의장, 중역의원들이다.</p> <p>74조: 국회의 업무방식, 기관,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으로 규제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제정 된다.</p> <p>제5절: 장관내각</p> <p>75조: 장관내각은 행정과 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은 장관내각의 의장직을 맡는다.</p> <p>76조: 장관내각은 의장의 보좌관과 장관들로 구성된다. 장관내각은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에 구성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유효하다.</p> <p>77조: 장관내각은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어지며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보좌관이 그 임무를 대신한다. 장관내각은 법률 안에서 의사를 결정한다.</p> <p>78조: 장관내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실행 조직, 대통령적 행동, 의회의 결정. 2)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방법을 취하고 재산권, 사회적 질서, 국가 안전을 보호한다. 3) 정부의 국내외 정치적 활동 기본방향에 관여하며,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계획하기 위해 의회의 안을 발전시키고, 소개한다. 4)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천연 자원 보호 및 이성적인 사용을 위해 정부 관리를 실행에 옮긴다. 5) 화폐와 신용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방법을 취한다. 6)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소, 각료의 복점관 산하의 다른 기관 7) 외국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외국 정부와 문화적 연결 발전을 보장한다. 8) 조직, 주기업, 정부 기관의 활동을 관리하고, 내각과 기관의 행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p>79조: 장관내각의 권력, 활동방식,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법률로 정해진다.</p> <p>제6절:지방행정권력</p> <p>80조:지방행정권력은 그 지역의 관료에 의해 그 지방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p> <p>81조:지방관료는 지역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퇴임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p> <p>82조: 지방관료는 지역의 수준에 맞는 정부기관의 활동을 관리하며 헌법, 법률, 대통령, 장관내각의 결의를 준수한다.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p> <p>83조: 예산 지역문제, 지역자산에 대해 자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p> <p>84조: 지방관료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은 법률에 근거한다.</p>
--	--

<p>제5장: 선거시스템과 투표</p>	<p>89조: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등은 보편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18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한편의 선거권을 가지며, 단 정신적 질병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직접 혹은 간접적인 선거권의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p> <p>91조: 선거는 직접적이다: 국회의원, 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다.</p> <p>92조: 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고, 투표동안 유권자의 의지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허용하지 않는다.</p> <p>93조: 후보자를 지명하기위한 권한은 선거법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에 속한다.</p>
<p>제6장: 사법권</p>	<p>99조: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법권은 오직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사법권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정부와 사회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한다.</p> <p>101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 예하에 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편향된 중재를 할 수 없다.</p> <p>102조: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5년을 임기로 한다. 임명과 해고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p> <p>105조: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p> <p>106조: 법적 절차는 국가 표준어로 진행되며 만약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내용을 숙지시키며 통역원을 통해 진행한다.</p>
<p>제8장: 마지막 조항</p>	<p>114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기관의 법률과 다른 행동들은 헌법에 의거해 시행되며 만약 헌법과 법률이 충돌 할 경우에는 헌법을 적용한다.</p> <p>115조: 투르크메니스탄의 공화주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p> <p>116조: 헌법개정은 2/3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이 있을 시 시행된다.</p>

자료: <http://www.uta.edu/cpsees/TURKCON.htm>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최초의 대통령인 사빠르무라드 니야조프(Сапармурад Ниязов)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실제적으로 제왕적 절대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적 군주국>, <가스등의 조명을 받고 있는 독재국가>로 불린다. 1990년 10월 선거에서 니야조프는 98.3%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상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한 최고 지도자로 되었다.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의 쿠데타의 실패 후 그는 소련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에서 탈퇴한다는 것과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이 소련방공산당과 결별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1991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은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니야조프가 당의장으로 선출되어 오랜 기간 동안 이끌어 왔었다. 니야조프대통령의 통치력은 점차 과도한 권위주의, 다당제의 배제,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비결단성, 반민주적 전통의 수립 등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니야조프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은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시장경제 모델을 취해야 하지만, 시장경제로 단숨에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국가계획경제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노선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1993년 1월부터 시행된 무료 가스이용료, 상수도요금, 전기료를 <포퓰리즘>으로 보지 않았다. 언뜻 보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는 부합되지 않는, 상품가격의 국가통제를 국민들은 환영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니야조프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유포되었다.<투르크멘바쉬(니야조프) - 우리의 힘>, <투르크멘바쉬 - 우리의 희망, 우리의 지혜, 개화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의 신성한 심벌, 투르크멘바쉬의 운명을 실현하는 것은-우리의 신성한 의무>등이다. 니야조프의 생일을 기념하여 전 국민의 경축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이름이 아쉬하바드의 대로와 도시 중심부의 대로, 수도네 구 레닌구역, 농업아카데미, 항공 미사일 부대, 많은 깔호즈와 소비호즈에 붙여졌다. 니야조프의 영광을 기려 도시 크라스노볼스크의 이름이 투르크멘바쉬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21일 니야조프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후 처음으로 6명의 후보가 나섰으며 니야조프 사망 이후 한 달 보름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복수 후보제 선거로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항거했던 국외 망명 인사들의 출마는 저지당했고, 6명의 후보가 모두 투르크멘 유일의 정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DPT)'출신이었던 것이다. 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했으며 선거위원장 등 각계의 지지 속에 선거가 진행되어 이미 당선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의를 맡았던 것을 계기로 1997년 보건부 장관과 2001년 부총리 등을 지내며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교육기회 확대, 사회 개혁, 경제 활성화, 연금확대등 사회 제반 분야의 제한적인 개혁을 주장했으며, 공약 중에는 인터넷의 전면 허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인구의 약1%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쇄적인 정치를 통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당 및 정치

(1)정당제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헌법에 의해 정당 설립을 보장하고 있다.

[표 2] 정당설립 관련 헌법 조항(제28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은 헌법과 기타 법률의 틀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 및 기타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 보유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설립·활동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로 헌법체계를 바꾸려는 목적을 보유 - 폭력을 허용 - 헌법상 시민의 권리·자유를 침해 - 전쟁, 인종·민족·종교적 적대감 및 사회적 불평등을 선전 ※민족·종교적 특성을 지닌 정당의 설립도 금지 - 국민들의 건강·도덕성을 훼손 |
|---|

그러나 실제로는 집권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만이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인정되고 그 밖의 정당은 모두 불법화 조치하였다. 불법화 조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정당 활동 및 야권 후보의 입후보를 불허하며, 정부의 재가를 받지 않는 정치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 다원화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국에 의해 1992. 7 '농민 정의당'(Peasant Justice Party)이 야당으로 등록되었지만 활동이 없었으며 현재는 소멸되었다.

(2) 민주당 및 주요 사회단체

가.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1991. 12 개최된 제 25차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DPT)으로 개명하고 니야조프를 당수로 선출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구 공산당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정 유지, 국민의 안전, 민족화합 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²⁾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16만 5,000명의 당원이 있으며, 모든 기업·조직·기관에 당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실시된 총선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이 전 의석을 독점하였다.³⁾

나. 인민위원회

의회가 수상임명이나 내각의 해산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법안발의권과 의회 해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회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정치체제에 의회제의 성격을 도입했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제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할크 마슬라하티(인민위원회)'의 존재이다. 인민위원회는 다른 국가들의 상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의회(메질리스)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민위원회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상정되고 있다. 인민위원회는 2,5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구이며 대통령과 의원, 최고재판소장, 최고민사재판소장, 검찰총장, 장관, 기타 지방행정수반들 및 부족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의 핵심인사들 모두가 인민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인민위원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제정 및 개정, 국가발전방향 결정, 조약비준, 전쟁선포, 대통령 탄핵결의 등이 있다. 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에 속하는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인민위원회는 1년에 한번 이상 소집되는 비 상설기관이었으나,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상설기관으로 바뀌고, 국가주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되는 의장실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의 의회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민위원회는 헌법상 인민권력의 최고대표기관이며, 이 기관의 존재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실제로 이 기관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인민위원회의 의장직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있다. 2003년에는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권력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이로써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권력은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고해 보이며, 더 오래 지속될 같다는 사실이다.⁴⁾ 이렇듯 과거 니야조프

2) 강령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치활동을 주도하고 야권의 충성스런 정치활동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정당'으로 활동한다고 규정

3) 2004. 12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50명중 49명이 국가기관·국영기업의 기관장 출신이며 1명은 교사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인민위원회는 최고의 입법기관이었고 국회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인민위원회가 폐지되어 국회가 명실상부한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입법 기관으로 부상하였다.

다. 주요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헌법과 사회단체법(91년 제정)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자유, 시민의 활동 발전, 국가·공공업무참여, 직업 및 기타 요구 충족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직업·참전군인·청소년·여성 등 분야별로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부활동을 지지·선전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사회단체현황

구분	재원 및 활동 내용
전 국민운동 “칼키니쉬(국가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야조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발전을 위해 설립제안 ● 1994. 11차 전당대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평의회’ 구성(나야조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선출) ● 70개 이상의 사회단체 및 예술동맹 등이 同운동에 참여 ● 목표: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 홍보, ‘루흐나마’ 정신에 기초한 정신적 쇄신 도모
각종 직업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2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 ● 직업동맹 합동총회를 통해 단일규약을 마련, 통일된 활동을 실시 ● 목표: “회원들의 이익 및 노동 ·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현과 보호”를 표방 ● “칼키니쉬 운동” 일원으로 활동, 주민 단합에 주요 역할 수행
참전군인회 투르크메니스탄 영웅 “아타무라트 니야조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3 참전군인회 창설, 2005. 5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 「나야조프」 대통령은 2차대전시 사망한 모든 투르크메니스탄 영웅'으로 호칭토록 지시 ● 주·군·시의 참전용사 관련단체들 포함(회원수:약 8,000명)
투르크메니스탄 청년동맹 “막툼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11 개최된 전국청년대회 「나야조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창설 ● 회원 수는 56만 명 이상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 ● 정치·사회 등 국제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 역할 제고 추구 ● “칼키니쉬”운동에 가입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동맹 “구르반술탄 에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4 창설 ● 전국에 하부조직을 운영(회원 수: 100만 명 이상)하고 있으며, “칼키니쉬 운동”에 가입되어 활동 ● 여성들의 권익 보호 등 대통령의 사회정책을 적극 수행 ※ 「구르반 술탄 에드제」는 「나야조프」의 어머니의 이름
세계 투르크멘인 인도주의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지원 하에 해외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활동 실시 ● 본부는 아쉬하바드에 있으며, 동포 거주 30여 개국 중 10여개국가에 지부를 운영

자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4) 김인성.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정치; 정치체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민족연구, Vol.27 2006.) pp.48-49

라. 야권의 활동

1) 국내 야권세력 부재

구소련 말기에는 2개 야권운동이 설립·활동했으나 연이어 활동을 금지 당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터키식 다당제 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당 강령으로 하는 ‘단합’(아그지비를리크)이라는 소규모 야권 그룹이 1989년 창설·등록되었다가 1990. 1월에 활동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어 ‘단합’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개혁과 정치문제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현재의 여당과 같은 당명)을 창당했으나,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1991년에 활동을 금지 당했다.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야권 활동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니야조프 대통령 암살기도(02.11) 및 주변국에서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 통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야권세력은 전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2) 해외에서의 야권 활동

국내에서의 야권 탄압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이 모스크바 및 서유럽 등지로 망명, 반정부 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특히 모스크바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단체로는 민주야권 연합(The United Democratic Opposition of Turkmenistan), 와탄 야권운동 등이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민주세력 연합(The Union of Democratic Forces of Turkmenistan)도 공동결성 하였다.⁵⁾

[표 4] 투르크메니스탄 민주세력연합

<p>◎ 구성 : 1990년대 이래 해외에서 활동 중인 반 니야조프 망명세력들이 2003. 9 구성 ※ ‘와탄 야권운동’, ‘투르크메니스탄 민주야권 연합’, ‘르네상스 정치운동’, 공화당 등의 망명단체들이 가담</p> <p>◎ 목표 : 투르크멘인들을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확립</p> <p>◎ 주요지도자 : 쿨리예프 전 외무장관, 오라조프 전 중앙은행장, 하나모프 전 주터키 대사 등 저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p> <p>◎ 국제기구들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제적 지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p>

자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마. 투르크메니스탄 정치시스템⁶⁾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요청하고, 1995년 유엔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1991년 10월 27일)과 동시에 유엔에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요청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비에트 중앙의 혼란한 상황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정세 판단이 불확실했고, 그렇다고 소연방 주체의 독립 운동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형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니야조프 정부와 그를 지지하

5) 중앙아시아연구소,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2007. 베델기획) pp.172-175

6) 이용권,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러 관계의 변화 요인 연구”

는 공산당이 혼탁한 세류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외적 여건 마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적극적 개입이 결과적으로 니야조프와 공산당 세력에까지 영향을 주어 권력기반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니야조프 정부의 행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을 폐쇄적인 독재 정치시스템을 갖게 하였다.

1990년 10월 27일 대통령에 당선된 니야조프는 1992년 5월 최고회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헌법을 채택하고 그해 6월 99.5%의 압도적 지지로 헌법 기반의 대통령에 재선되어 강력한 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정당제 또한 구공산당을 전신으로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만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일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건설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정당건설 이전에, 또는 건설 이후에 와해되었다. 독재시스템 구축을 소비에트 일당 체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와해가 투르크메니스탄 기득권 세력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강력한 1인 체제와 일당체제의 유지에 기존 정치엘리트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책결정 구조는 그 자체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메즐리스 Mejlis)는 친정부 성향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과 동일시되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인민위원회 또한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최고재판소를 포함하여 최고 경제법원, 군사법원 등 각급 법원의 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사실상의 그 어떠한 장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 후 2007년 신임 대통령이 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다.⁷⁾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의 비교우위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 개방의 원칙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니야조프 정부와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속되고 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 겸 총리로 되어 있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수용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외부 조건(여론, 외부의 개혁 움직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의 의사결정구조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확연하게 다른 폐쇄적이며 하향-명령식 단일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2008. 12. 14 투르크메니스탄 총선

지난 해 12월 14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약 260만 명의 유권자 앞에 총 288명의 후보가 등록된 이 선거는 2년 전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 사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의원 선거였다. 선거 당일 정부의 공식적 발표(www.Turkmenistan.ru)에 따르면 총 2118개 투표소에서 투표율은 93.8%였다. 이는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총선 투표율 76.88%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 언론의 취재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사상 최초로 CIS(독립국가연합)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모니터 요원만이 감시, 감독을 하였다.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선거에 감사를 실시한 CIS측은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자유롭고 공개된" 선거를 공언해왔다. CIS 행정 국장이자 선거감사단의 단장인 세르게이 레베데프는 이번 선거의 적법성과

7)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의회의 의원 수를 기존 65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하였으나,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으로 주지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이 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되었다.

중요성을 되짚으면서 "선거는 합법적으로 잘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향후 민주화 되는 데 기여하는 자리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관영 언론은 "투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민주개혁의 열망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외신들과 단체들은 정부의 선거 통계가 과장된 것이라며 무엇인가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베르디무하메도프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정책이 완전히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야당이 없는 일당 체제의 의회정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 상의 집권 유일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이 승인한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 등록했던 후보자 288명도 모두 친민주당, 친정부 성향의 인사인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한 반면, 일부에는 이러한 선거 자체가 투르크메니스탄 민주화 및 개방으로 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완벽히 민주적인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시적이거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개혁 발언과 제한적 이행, 그에 따른 최초의 총선 실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며 더 개선될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자는 시각이다.

이번 선거는 단 시일 내에 등장한 결과물이 아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7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고, 일정 수준의 개혁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다. 국외 거주자들의 투표도 허용했으며 사상 최초로 CIS와 OSCE의 감사단도 허용했다. 적어도 개혁을 향한 외형적 틀이 갖춰져 가면서 니야조프 대통령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⁸⁾

Ⅲ. 장기집권의 원동력

1. 정치적 측면

(1) 불투명한 정치시스템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요청하고, 1995년 유엔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1991년 10월 27일)과 동시에 유엔에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요청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비에트 중앙의 혼란한 상황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정세 판단이 불확실했고, 그렇다고 소연방 주체의 독립 운동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형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니야조프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공산당이 혼탁한 세류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외적 여건 마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외부세력의 적극적 개입이 결과적으로 니야조프와 공산당 세력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권력기반이 위태로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니야조프 정부의 행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투르크메니스탄을 폐쇄적인 독재 정치시스템을 갖게 하였다.

8) <http://www.missiontoday.co.kr/> 2008년 12월 17일 기사 참조

1990년 10월 27일 대통령에 당선된 니야조프는 1992년 5월 최고회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헌법을 채택하고 그해 6월 99.5%의 압도적 지지로 헌법 기반의 대통령에 재선되어 강력한 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정당제 또한 구공산당을 전신으로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만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일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건설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정당건설 이전에, 또는 건설 이후에 와해되었다.⁹⁾

독재시스템 구축을 소비에트 일당체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와해가 투르크메니스탄 기득권 세력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강력한 1인 체제와 일당체제의 유지는 기존 정치엘리트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책결정 구조는 그 자체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메즐리스 Mejlis)는 친정부 성향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과 동일시되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인민평의회 또한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최고재판소를 포함하여 최고경제법원, 군사법원 등 각급 법원의 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사실상의 그 어떠한 장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 후 2007년 신임 대통령이 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다.¹⁰⁾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의 비교우위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 개방의 원칙을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니야조프 정부와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속되고 있고, 정책 결정과정이 대통령 겸 총리로 되어 있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수용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외부 조건(여론, 외부의 개혁 움직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의 의사결정구조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확연하게 다른 폐쇄적이며 하향-명령식 단일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부재

미국의 NPO 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www.freedomhouse.org)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에 대한 평가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는 2005년 대비 2006년도의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9) 국제사회의 다당제 요구로 농민정의당(Peasant Justice Party)이 1992년 7월 창당되었으나, 이는 서류상의 정당에 불과하고 활동은 전무하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반정부 운동단체인 아그지비르릭(Agzybirlik) 연합과 야당인 민주당(집권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활동했으나, 정부의 탄압 정책으로 와해되었다. 에너지자원-투르크메니스탄, 외교통상부, 2009.7월, p.38.

10)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평의회가 폐지되고 의회의 의원 수를 기존 65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하였으나, 이 헌법 개정으로 주지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이 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되었다.

[표 5] 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평가도¹¹⁾

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91/1992	6,5 PF	5,4 PF	5,4 PF	3,3 PF	6,5 PF
1992/1993	6,6 NF	5,5 PF	4,2 PF	6,6 NF	7,6 NF
1995/1996	7,7 NF	6,5 NF	4,4 PF	7,7 NF	7,7 NF
1997/1998	7,6 NF	6,5 NF	4,4 PF	6,6 NF	7,7 NF
1999/2000	7,6 NF	6,5 NF	5,5 PF	6,6 NF	7,7 NF
2001/2002	7,6 NF	6,5 NF	6,5 NF	6,6 NF	7,7 NF
2002/2003	7,6 NF	6,5 NF	6,5 NF	6,5 NF	7,7 NF
2005/2006	7,7 NF	6,5 NF	5,4 PF	6,5 NF	7,7 NF

주: 칸 안의 왼쪽 숫자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평가이며 오른쪽 숫자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평가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민주화 정도가 높게 평가된다. (F:자유국가, PF:부분적 자유국가, NF:자유가 없는 국가)

상기 표에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7,7 NF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세계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의 지배적 전통과 소비에트 체제로 인한 시민사회의 부재는 권위주의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가산제적 권위주의

투르크메니스탄은 반대파를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여 정당도 하나이며 정치의 다원성이 거의 없어 통상 권위주의체제와는 사뭇 다르다. 정교하고 제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대중의 동원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라고도 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역시 린 쓰가 이용하고 있는 술탄니즘의 개념이다.

술탄니즘은 가산제¹²⁾중에서도 특히 자의적이며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 지배의 성격이 강한 체제로 여겨진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첫째, 체제 유지를 위해서 폭력이 이용된다. 둘째, 지배자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지배자로부터 개인적 보수를 얻는 사람들은 체제에 협력한다. 지배자가 극단적으로 찬미되어 그 이름이 부여되고 내용물이 없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다. 넷째, 지배자의 친족이나 친구가 중용된다. 다섯째, 정치적 동원은 주로 의식·의례적인 것에 한정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술탄니즘으로 분류되는 실존의 체제가 이러한 특징을 갖춘다고는 할 수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니야조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찬미되고, 특히 2001년에 그의 저서 「루후나마(영혼의 글)」가 발표된 이후 투르크멘인의 역사와 도덕에 대해서 쓴 이 책이 성스러운 책으로 여겨져 모든 직장이나 학교에서 학습되어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연출하기 위해 할크 마스라하티(인민평의회) 등의 의식행사에 국민을 동원한다고 하는 점을 보면 술탄니즘적 색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친족이나 친구로 구성된 측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네트워크를 남은 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니야조프를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 고

11)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59> 참고.

12) 지배자가 국가를 사물화 하는 체제.

위 직무자가 자주 돌연 해임되고 정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엘리트층에게 공포를 주고 있지만 살인 등과 같은 현격한 폭력은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라고 하는 문제와 관계하지만 국가의 직무에서 쫓겨난 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이용하여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대규모 폭력을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적 지배를 실현시킬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1)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의 특징

가. 핵심 산업의 국유화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산업, 농업, 교통 및 통신업 등 핵심 산업을 거의 100% 국유화하고, 국영기업이 벌어들인 외화 및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수입대체산업화 및 사회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 산업부문에서 예를 들면, 총 5개의 국영기업이 석유·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에서 수출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나. 취약한 사유화

사유화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실적이 매우 미진하며, 이로 인해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1999년 6월까지 사유화된 기업 2,000개 중 중대 기업은 85개로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며, 산업별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과 상업·요식업의 비중이 95.4%에 달했다. 또한, 토지의 사유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3%에 불과해 토지부문에서의 자유도 역시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5년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발표했으나, 외부에서는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입

정부는 국가 전반의 임금, 상품의 가격 및 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전력·수도 등 기초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하고 있다.

가격 및 거래는 1994년 설립된 투르크멘 상품거래소(COMEX)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다.(실제로 공식 환율 기준 5,700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외 거래는 반드시 COMEX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국가 전체의 임금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민간부문의 임금은 법적으로는 회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나 실제로는 공식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외환거래 부문에서는 1998년 잠시 자유화되었으나, 공식 환율과 장외 환율이 300% 이상 벌어지면서 중앙은행을 통한 경매로 제한되었다.

(2)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의 성과 및 한계

가. 성과

정부의 적절한 계획에 따른 정유 산업, 면화 중심의 경공업 등 수입대체산업에의 정부투자는 1998년

이후 경제회복과 10~20%의 고성장을 이끌어 소비에트식 계획경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체제전환 초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나. 한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최근 10%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암시장이 번창하면서, 마나트(Manat)貨의 對달러 공식 환율은 5,200마나트로 고정되어 있으나, 암시장 환율은 달러 당 24,000마나트를 호가하는 등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Fitch는 2005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철회하였다.

EBRD 추정 FDI 유입은 연간 300만 달러로, 연간 20억~3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총투자증가율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2007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00점 만점에 42.5점을 받아, CIS 30개국 중 28위의 열악한 경제자유도를 기록하였다. 즉,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경제통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의 왜곡현상을 강화시켜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고립되어 강력한 국가통제 기반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환경 및 경제자유도가 악화되고 있다.¹³⁾

3. 사회적 측면

(1) 씨족정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종족 정체성이나 종교정체성보다 더 강한 정치사회적·경제적 동원력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씨족 정체성(clan identity)’이다. 씨족은 친족관계나 가상의 친족관계가 핵심이 되는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이며, 그 속에서 친족관계는 집단성원들의 유대와 결속을 일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씨족은 “친족을 기반으로 확장된 수평적·수직적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네트워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씨족은 친족이 그 토대가 된 규범 및 신뢰의 문화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씨족 정체성은 “친족적 유대에 기초한 비공식적 정체성이며 준 근대 사회에서 공통된 것이다. 그러한 사회들에서 씨족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정체성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종족적·종교적 정체성들보다 더 강하다.” 씨족은 사회정치적·경제적·일상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제도화의 수준이 낮거나 불안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공식적 연계망은 높은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씨족은 준근대 사회나 이행기 사회에서는 공식적 시장 제도 및 국가 관료제의 대안 역할을 수행한다.¹⁴⁾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국가 형성을 위한 투르크멘 사회의 통합과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씨족적 구조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속되고 있다. 투르크멘인의 약 70%가 농촌에서 살고 있고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CIS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민족 간 관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것인 투르크멘인의 주요한 민족적 자기인식

13) KIEP 지역경제포커스 07-02호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현황과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pp.8~11

14) 강봉구. "현대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 씨족적 정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중의 인식 속에 씨족간 관계가 러시아어 사용인과의 관계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씨족의식의 중요성은 엘리트층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가 일정한 씨족이나 친족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룹의 대표를 지도자의 주변에 집중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일인을 정점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구조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개혁이나 정책이 수행되기가 어려워지며¹⁵⁾, 공공의 재산과 사적인 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마련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정치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단의 집단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독점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친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소수엘리트에게 경제적인 자원이 집중되고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정치적 차이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들은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보다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민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민족은 투르크멘인 73.2%, 러시아인 9.8%, 우즈베크인 9.0%, 카자흐인 2.0%, 타타르인 0.9% 등이며, 상당수의 타타르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카라칼파크인 등이 거주한다. 투르크멘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주 역사가 오랜 민족으로 호전적 기질의 종족이었으며, 강력한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의한 점령과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부락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원래 유목민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정착되었으며,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부족과 씨족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는 192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집중지는 아무다리야와 무르가프 하곡 및 코페트다크산맥의 오아시스이다.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 언어가 민족 내에서 통용되었으나 19세기 말 이래 러시아의 언어동화정책으로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였으며, 독립 후 투르크멘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 국가형성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이 지역 국가들이 한결 같이 다민족 국가라는 점이다. 독립당시 이 지역에서 명목민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이 때문에 명목민족이 어떠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여타의 소수민족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어떠한 입지를 차지해야 하는 지는 정치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였다. 정치지도자들은 끊임없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왔지만 정부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격한 민족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부는 되도록 민족분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일종의 유화정책을 펴면서도, 소수민족이 이민을 유발하고, 해외거주 자민족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이중국적제도를 거부하면서도¹⁶⁾, 다른 한편으로는 1991~1992년에 채택된 시민법을 통해 법률의 채택 시점에 각국의 영구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소수민족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되도록 제한하여 소수민족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다. 즉,

15) kubic다, p."Authoritarianism in Central Asia: curse or cure?" Third World Quarterly,1998,

16) 투르크메니스탄이 유일하게 1993년 12월에 러시아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2003년 헌법에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수민족들이 사회,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일정정도의 융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민족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이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각국 명목민족들의 정치적인 구심점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소련 말기 러시아에서처럼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지지가 결집된 사례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지역 국가들은 민족주의적인 레토릭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민족주의 세력의 압력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구소련의 최고위관료들이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이들은 오히려 민족주의 집단들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봉쇄하면서,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 개인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에 있어 명목민족의 지위강화는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공식 언어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한에는 법을 실행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소수민족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민족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급진적 민족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며,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적은 없다.

4. 종교적 측면

(1) 종교(이슬람) 부흥

1991년 소연방의 붕괴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독립을 즈음하여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강력한 이슬람 부흥운동이다. 종교적 활동과 조직결성이 합법화되었으며, 이미 1989년과 1990년에 종교적 축일을 기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각종 기업과 기관에 기도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부흥의 상황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원 수의 폭발적인 증가라 할 수 있다. 사원의 재건과 신설이 중부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1992년경 우즈베키스탄의 사원 수는 3000여 개에 이르렀고, 타지키스탄은 2000여개의 사원이 등록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사위도 갖지 못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스하바트에도 사원이 세워지기 시작해 1992년경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 약 500개의 모스크가 건립되다. 한편 지식인 사이에서는 이슬람 교리와 아랍어 학습이 붐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공화국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강력한 이슬람 부흥의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념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소연방 붕괴와 체제 변화의 과도기가 불러일으킨 위기의식과 정체성의 상실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의 지배 질서를 대신할 만한 확고한 대안질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자유와 독립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 도덕적 가치기준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해당 지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인 이슬람에서 찾으려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슬람은 소련의 의도적인 민족분할과 언어의 이질화에 의해, 초기의 투르크족이라는 민족적 일체성과 투르크어라는 언어적 공통성을 상실한 채 반복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인을 결속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소련 지배하에 왜곡되고 억압된 민족문화의 회복 과정이기도 하다.

두 번째, 경제적 차원에서 이슬람에의 의존은 독립 후 심각하게 악화된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하는 카자

호스탄의 경우조차 독립 후 GDP, 공업생산량, 농업생산량, 자본투자가 각각 독립 이전의 46.9%, 48.1%, 56.1%, 13%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속에서 위안을 구하게 하였다. 한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위대한 예언자 마호메트와 4대 정통 칼리프 시절의 공정한 사회적 경제적 질서의 구현'을 약속하는 이슬람이 이들에게 어필한 것은 당연하다.

세 번째, 이슬람 부흥의 원인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다시 공식적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와 일반 대중의 정치의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일단 전자의 경우,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이슬람 재건 사업이 국가의 허가나 주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이슬람 부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모든 중앙아시아 대통령이 구소련시절 지역 공산당 서기관 출신이며, 민주주의적 경험이 부재한 해당지역에서 이들 정권은 공산주의식 일인 독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권력의 정통성의 부재를 이슬람과의 결합을 통해 보완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 정체성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종교, 즉 이슬람을 체제 내로 수용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대중의 이슬람에 대한 지지를 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정치의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집권세력의 친 이슬람 정책은 주변 이슬람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취해진 측면이 있다. 독립 후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터키,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변 이슬람국가와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종교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후 비로소 가능해진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와의 활발한 교류는 해당 지역에 이슬람이 부흥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어 준 것이다.

(2) 종교 갈등

전통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이란 등지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족과 마찬가지로 순니 무슬림이다. 시아 무슬림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시아 이슬람을 따르는 소수의 아제르바이잔인과 쿠르드인과의 정치적인 마찰도 없다. 대부분의 투르크멘 인들은 그들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며 이슬람을 그들 문화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며 옛날과 같은 상태로 종교가 부활하는 것을 단지 민족 부활의 한 요소로서만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모스크에서의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그 예배를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결혼, 장례, 성지 순례 등과 같은 통과례 등 이슬람과 관련된 전통행사에만 참여한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공산 당국은 모든 종교를 미신이며 "구시대의 잔재"라고 비난하며 억압했다. 모든 종교 교육이나 행사가 금지되었고 대다수의 모스크들이 폐쇄되었다. 2차 대전 중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을 감독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타쉬켄트에 본부를 둔 "중앙아시아 무슬림 종교청"이 설립되었다. 이 종교청은 주로 선전 도구에 불과하여 무슬림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는 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신론이 주입됨으로써 종교 발전은 억제되었고, 이로 인해 투르크멘 인들은 국제 무슬림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었다. 장례, 할례와 같은 일부 이슬람 관습이 소비에트 시대를 거치고도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종교적 신앙, 지식, 관습이 단지 시골지역에서만 비공식적인 "민속 이슬람"의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

현재의 정부는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조직을 통해 공식적인 이슬람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즉, 독립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무슬림 종교청 산하의 투르크메니스

탄 카디칭이 그대로 존속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내각 산하에는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성직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성직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정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을 나와야만 하지만, 간단히 시험을 통해서도 성직자의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1990년 이후 소비에트 통치 시절에 상실된 문화유산의 일부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통령 니야조프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근본 교리들을 가르칠 것을 지시했다. 종교 학교와 모스크 등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종교 시설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터키 등의 지원을 받아 세워졌다. 학교뿐 아니라 모스크에서도 종교 수업이 개설되어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이슬람 역사 등의 과목을 아랍어로 가르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종교에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1991년에 제정되고 1992년에 성문화된 종교 조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교 행위, 비공식적인 종교의 선교 책자 살포, 종교에 대한 차별, 종교 정당의 설립 등을 금지시킴으로써 이슬람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반을 제거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종교 문제를 가르치는 교사 및 성직을 담당할 인물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독립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과거보다는 더 독립된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아직도 정부의 통제에 순응하는 편이다. 무슬림 판사들로 구성된 카디칭은 1992년 6월 선거에서 현 대통령 니야조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바 있다.

반면에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은 정부가 세속적 정책을 펴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며, 현 정부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정부 지도자나 정부 조직 밖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국민들의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슬람 본연의 교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동들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러시아정교를 믿고 있는 슬라브인들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면서, 종교 활동을 더욱 빈틈없이 감시하기 위해 종교위원회를 정부 부처와 같은 지위로 승격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인접국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어오는 이슬람 혁명의 여파를 차단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¹⁷⁾

IV. 국내·외 정책

1. 경제 정책

(1) 경제구조와 특징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는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 저편에서 수구적 태도를 보일 정도로 정치·사회적 폐쇄성이 심했던 지역이다. 그러한 이유로 1991년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당시 소연방 전체에 퍼져 있었던 자발적 국가건설의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았고, 정치형태의 변화나 정당 시스

17) 강삼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정책” 아태지역연구센터, 재인용

템 개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폐쇄적 사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여전히 1당 체제(투르크멘민주당)의 1인 독재 시스템(니야조프, 그리고 그의 사망 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을 커다란 정치적 굴곡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회-경제 발전 근간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에서 개방과 개혁을 위한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벤치마킹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요구에 따라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한 2000년 이후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시스템은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자본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망 매장지를 중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그동안의 배타적 성격을 완화하여 외국자본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¹⁸⁾

국제 유가가 상승하던 1999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0-2010년 사회-경제 전환전략 “Strateg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을 마련하고¹⁹⁾ 사회적 재원을 통한 생산 및 소비의 총량과 패턴을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에 맞춰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 주류에서 소비에트식 계획경제가 적절한 접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니야조프식 경제발전 전략은 IMF식 체제전환 방식을 요구했던 외부 신자유주의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이어져 유럽으로부터의 의미 있는 가시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⁰⁾ 투르크메니스탄의 내부 시장은 러시아와 주변 CIS 국가를 제외하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야조프 정부가 준비한 사회-경제 전환전략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극적 차원에서 소규모로 준비된 ‘그들만의 전시성’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가 외부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의 대체재 개발, 또는 수입대체 효과 유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분명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비교우위에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과 같은 에너지 산업을 통해 자본축적을 이루고 이를 통해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순차적/동시적 진행을 이 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18) 2000년 이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니야조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독립직후인 1992-1993년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승인법·외국인 경제활동법 등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 혜택과 국제협정에 관한 우선권도 보장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은행법, 개인 소유권, 지적재산권 보호법, 석유자원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활발한 자본투자를 유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와 면화 등의 한정된 산업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 저유가 기조 속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은 거의 없었다.

19) 2003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경제, 정치 및 문화 발전 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20) 니야조프 정부는 1999년의 사회-경제 전환전략을 채택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기 보다는 내부의 문제를 CIS 역내에 한정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3-2005년 평균 GDP대비 무역 비중이 19%에 불과했으며,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출입 지역만으로 경제 개방도를 평가해 보면, CIS 주변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41%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낮은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니야조프 정부가 국내 정치,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외개방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21) 이세영, 중앙아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전망, 2008 KIEP,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 KIEP 2008.10.1. 참조

(2) 경제 정책 방향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 중 아직도 과거 소련에서 사용하던 소비에트식 계획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소연방 해체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니야조프 대통령이 강력한 사회 통제 정책을 권력기반 안정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0년대 러시아의 개혁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좌초위기로 치달으면서 니야조프의 경제정책은 IMF 자본으로 대변되는 유럽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사회적 혼란 요인으로 생각했고, 이를 강력히 통제하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중앙아시아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투르크메니스탄의 체제전환기 경제는 다른 CIS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침체되어 갔다. 1997년의 GDP는 1992년 대비 약 43% 이상 감소하였고, 에너지 자원 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었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저유가 기조에 따른 실업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를 크게 악화시켰다. 1990년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가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인 천연가스 소비의 감소와 그에 따른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생산량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1992년 56.1bcm에서 1997년은 16.1bcm으로 약 1/3 감소하였고, 수출량 또한 1992년 대비 약 1/7로 감소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던 천연가스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5년 우선 투자분야로 가스·통신·농업·직물·보건·관개 분야를 지정하고, 이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93개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미약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유입되지는 않았다. 즉,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제 부양 정책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야조프 정부는 1999년 “2000-2010년 사회-경제 전환전략(Strateg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2000-2010)”을 발표하고, 에너지 자원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수입대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투자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경제의 호황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주변 CIS 국가들과는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급격히 성장한 카자흐스탄을 모델로 하여 2000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러시아 자본과 유럽 자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 또한 이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2년 1억 5,000만 달러에 머물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5년 3억 1,500만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6]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순투자액	150	158	315	236	213	207

자료: EBRD, UNCTAD

그러나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투르

크메니스탄 정부의 외국 자본 통제가 비교적 유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액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이다. 그나마 늘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액 규모가 2005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03-2005년을 전후하여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불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색깔혁명)의 여파로 니야조프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투르크메니스탄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 자본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한 10개의 자유무역지대에서도 정부가 잦은 간섭과 통제를 했으며, 금융,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외국자본이 수도인 '아쉬하바드(Ashgabat)'를 제외하고는 다시 외부로 환류 하였다. 이는 비단 자유무역지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국가가 발주한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그 규정 또한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셋째, 무엇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세금감면, 기타 특권 부여 등 투자 우대조치가 개별 투자건 별로 자의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는 기존 투자자를 항상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신규투자나 재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문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이 외국 자본 및 기술 투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었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감소세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06년 12월 철권정치를 보였던 니야조프 대통령이 사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07년 초 집권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정책 방향이 변화되었다. 우선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보다 개방의 정도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위한 보다 선명한 외국인 투자법도 제시하였다. 2007년 제정하고 2008년 3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07년 말에 뉴욕에서 직접 발표할 정도로 미국 및 유럽의 투자를 적극 요청하기도 하였다.

(3) 주요 경제 지표 및 에너지 정책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러시아의 가스가격 인상으로 2005년 흑자로 돌아섰다.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추진하고 있던 니야조프 정부의 정책이 다른 CIS 국가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를 안정화 할 수 있었고, 절대적인 외국 투자규모가 적었던 만큼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 요인 변동성이 적어,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래 <표> 에서 주목할 부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출 증가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면 당분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경제지표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2009년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2008년 초 러시아와 체결한 가스가격 협상에 따라(유럽 시장가격 연동) 그 이전보다 오른 가격으로 가스 수출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경제 지표

	GDP(10억\$)	수출(백만\$)	수입(백만\$)	외환보유(백만\$)	성장률
2004	5.8	3,854	3,148	2,729	9.0
2005	6.4	4,944	2,947	4,458	6.0
2006	7.4	7,156	2,558	8,059	6.0
2007	8.5	7,814	3,618	13,192	6.0
2008	8.1	11,593	4,470	12,123	3.0

자료: EBRD(2007), Transit report update 2007

EIU(2009) 추정, Country Report. 2009, 1.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7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을 신설하고, 2008년 8월 석유가스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개발 계획 2020(이하 에너지 2020)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2020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가스관 및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가스 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발전을 모색하며, 석유 공업단지를 증축하고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2020에 기초해 석유 및 가스 부문 인프라 건설과 매장지 개발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그 중 약 240억 달러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 경 연간 약 1억 톤의 석유와 2,500억 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⁸⁾ 이러한 정책이 모두 성공한 다는 보장은 없지만,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고,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대규모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외부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정부 통제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부분적으로 자유화 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이고, 정부 재정 수입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사회 내부의 통제 범위와 수준을 함께 계산했을 정치엘리트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의미가 있다.²²⁾

2. 대외 정책

(1) 중립 정책 하에 점진적 개방 정책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은 기존의 중립정책 고수를 밝힌 바 있으며, 안정적 가스 수출 여건 확보와 외국 투자 유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 개방정책을 양대 외교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급격한 개방정책 추진이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중하고 제한적인 대외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서방의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고 외국 NGO입국을 엄격히 차단하는 등 對서방 관계 개선에는 조심스러운

22) 이용권,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와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 :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독립 경향을 중심으로 pp.1~6

입장이며,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등 주변 관련국들과의 실질협력 관계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對 러시아 관계

자국안보 확보, 국경보전 및 러시아 경유 가스관 이용 등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에 대한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4월 향후 25년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대러시아 공급을 규정하는 러-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협력협정 및 양국 국영 가스공사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7년 4월 모스트바 방문시 2003년 니야조프 前대통령이 서명한 2003년 가스분야 협력협정 준수를 확인하였으며, 동 협정에 근거, 러시아는 2006년 410억 m^3 , 2007년 500억 m^3 , 2007-10년간 600억 m^3 의 가스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연도별 가스 공급 가격은 06년도 \$44/1,000 m^3 , 07년도 \$100/1,000 m^3 , 08년도 상반기 \$130/1,000 m^3 , 하반기 \$160/1,000 m^3 로 책정되었다. 2009년부터는 가스프롬사가 유럽 가스시장 가격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유럽 간 가스 운송비용(이윤 및 자연 손실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러시아 가스 공급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그간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물량의 90% 이상이 자국 가스배관망을 통해 수출되는 점을 활용, 투르크멘산 천연가스를 국제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에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왔다.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의 불만이 높아지자 러시아는 가스 구입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상해주고 가스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나. 對 중국 관계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영구 중립정책을 지지하고 투르크메니스탄도 대만, 티벳 문제에 대한 중국입장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입장을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대규모 유전개발, 송유관 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4월 중국 국빈방문 계기에 니야조프 前 대통령은 2009년부터 30년간 연 300억 m^3 (2008년 8월 후진타오 주석 방문이 400억 m^3 로 증대)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양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망(총 7,000km)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른 가스 공급가격은 국제시세에 기초,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게 되는 가스배관망 관련 상세내용은 향후 양측이 협상을 하며, 경유국들과는 중국이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중국과의 점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가스배관망의 독점체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수출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하며, 중국이 가스 대금 전액을 미화로 지불하기로 한 바, 부족한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과는 석유·가스, 섬유, 운송 등 30 여개 협력 협정을 체결, 10여개 중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 중이며, 최근 직항로 개설 등에 힘입어 중국산 의류 등 생필품의 수입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 對 CIS 및 주변 국가 관계

1) CIS 전반

영구 중립국으로 CIS군사 블록에는 불참(CIS 회원국 간 조약에 선별적으로 가입, CIS 집단 안보조약에는 불참)하고 있으나, 경제·문화·교육 등 비정치 분야에서는 CIS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CIS 정상회의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각종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CIS 각국들과 양자협력 관계의 발전·강화 모색, 특히 최대 가스시장인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對 카자흐스탄 관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의 확장 및 신설,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간 철도 연결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 및 체제 전환 경험을 전수 받는데 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3) 對 우크라이나 관계

우크라이나와는 당초 가스 가격 분쟁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직거래보다는 러시아 가스프롬사를 이용한 간접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연간 약 360억m³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²³⁾

4) 對 우즈베키스탄 관계

우즈베키스탄과는 독립 이후 악화되었던 관계가 최근 개선되는 추세이다. 2004년 11월 양국 정상은 소수민족 문제, 2002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등으로 쌓인 그간의 앙금과 가스 수출 경쟁 등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구소련 당시 수준으로 복원키로 전격 합의하였다.

5) 對 터키 관계

터키는 동일한 투르크계로 언어상의 동질성 등으로 투르크멘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터키의 제2의 투자교역국으로 부상, 특히 터키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사업 분야에 진출이 활발하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내 등록된 외국 건설 기업의 70%가 터키계 기업이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건설 기업의 90%가 터키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7년 12월 굴 터키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2008년 3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터키 방문, 2008년 10월 에르도안 터키 총리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의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하며 그로 인한 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내 反 터키 정서로 인해 터키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이 일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6) 對 미국 관계

2002년 11월 니야조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용의자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양국관계는 냉각되었다.

23) The Moscow Times 6/27, Interfax 6/27, 2005.

강삼구(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정책 pp.16

투르크메니스탄은 동부 가스전 개발 및 동 가스의 아프가니스탄 경유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문제 제기 및 미국계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저조로 관계 개선 속도는 느린 편이다.

7) 對 이란 관계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7대 수입대상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국으로서 독립 후 가장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을 승인한 국가 중 하나이며, 비아랍이슬람경제협력기구(ECO :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사무국 테헤란 소재)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양국 간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관계가 강화되었으나 2008년 초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이란 가스 공급 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등 긴장 및 갈등 요소도 상존해 있다.

8) 對 아프가니스탄 관계

아프가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접경 국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복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3개주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전기수입 부채의 절반을 탕감해주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배전망 및 도로 건설,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등을 특별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아랍이슬람경제협력기구(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 및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9) 對 일본 관계

일본과는 2005년 아쉬하바드 공관 개설이후 이토추, 코마꾸, 미쓰비시 등 일본 대기업들이 20여개 협정과 계약을 체결, 석유화학 단지 건설 및 현대화 사업과 철도, 도로 재건사업에 대해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10) 對 EU 관계

투르크메니스탄은 Nabucco 가스관 건설 방안 협의 등을 통해 EU의 주요 에너지협력국이 되었다. EU는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²⁴⁾

V. 결론

중앙아시아국가들은 구 소비에트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비록 독립초기에는 자국의 주권 및 독립선언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자주성의 모습으로 출연하고자 했으나 국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력집중현상과 장기집권을 포함한 권위주의체제의 고착화로 귀결되고 있다. 그 중 대통령의 권력집중현상이 가장 심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권위주의체제보다 한 단계 상위에 속해있는 가산제 권위주의형태를 띄고

24) 외교통상부 2008.11 - 투르크메니스탄 개황 pp. 24-31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는 독립 직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기도 하다. 독립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국민들의 개혁·개방의 침묵과 무관심은 현재의 일당체제 및 독재 체제와 같은 지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독재체제의 형태가 뚜렷한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산제적 권위주의인 술탄니즘의 이해도를 린쯔의 분석틀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는 과거 구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지연·학연·혈연·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작동원리를 유지·계승하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형태를 통한 할크 마스라하티(인민평의회)라는 독특한 기구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 갖고 있을 법한 고유권한을 동기구가 갖고 있으며,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종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결과에 귀속되었다. 비록 최근 에너지산업을 통한 점진적인 개혁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보다 상위개념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1당 체제의 유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봉구, 2009, "현대중앙아시아의 씨족정치", 『e -Eurasia』 vol. 1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재영, 2008, "중앙아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전망," 『KIEP, 중앙아시아 이슈별 집중과정』, 2008.10.1.
- 참조
- 중앙아시아연구소, 2007, 『은둔의 나라 투르크멘』 (베델기획)
- 김인성,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정치; 정치체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민족연구, Vol.27 2006.)
- 이문영, 2003, "중앙아시아의 종교 상황과 종교정책", 『국제지역연구』 제 7권 제 1호
- 정수일, 2002, "이슬람 문명", 창작과 비평
- 최소영, 2000, "소비에트 정권과 반 이슬람 정책의 변화", 『외대사학』 12.
- kubic,p. 1998, "Authoritarianism in Central Asia: curse or cure?" Third World Quarterly, 경제정책 전망
- 송재우, 1996, "중앙아시아의 종교와 민족주의",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임영상, 황영삼 공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고재남, 1992, "민족문제와 소연방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소련과 러시아』, 한국 슬라브학회편, 민음사
- 이용권,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러 관계의 변화 요인 연구"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현황과 신정부의", 『KIEP 지역경제포커스』 07-02호
- 이용권,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와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 :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독립 경향을 중심으로"
- 우덕찬, "중앙아시아의 종교정책", 『중동연구』 제 19-1권
- <http://www.uta.edu/cpsees/TURKCON.htm>
-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459>
- <http://www.uz/contentenru92.html>
- <http://www.tmrepublican.org>
- <http://www.missiontoday.co.kr/newsREAD.php?num=8468&code=0802006&PHPSESSID=c42f78778f6972adbe7a553743e98482>
- EBRD(2007), Transit report update 2007
- EIU(2009) 추정, Country Report. 2009, 1.